

차 례

제 1 부 政治體制와 民主化

民主化 過程에서의 民衆: 1987. 6~1988. 4.....〈李 甲 允〉· 8
 韓國民主化의 意味와 當面課題:韓國政治變動의 歷史的 認識 ...〈孫 鶴 圭〉· 26
 「民主化過程에서의 民衆」에 대한 論評〈咸 澤 英〉· 49
 「韓國民主化의 意味와 當面課題:
 韓國政治變動의 歷史的 認識」에 대한 論評〈李 南 永〉· 55
 政治體制와 民主化: 論評에 대한 答論과 綜合討論60

제 2 부 分斷과 民族問題

統一問題 研究의 새로운 方向摸索〈河 英 善〉· 70
 分斷의 再認識〈白 雲 善〉· 92
 「統一問題 研究의 새로운 方向摸索」에 대한 論評〈金 世 均〉· 111
 「分斷의 再認識」에 대한 論評〈李 鍾 殷〉· 115
 分斷과 民族問題: 論評에 대한 答論과 綜合討論120

제 3 부 經濟體制와 經濟變動

主流經濟學의 方法論 考察〈韓 成 信〉· 130
 韓國經濟의 歷史-構造的 認識〈金 大 煥〉· 165
 「主流經濟學의 方法論 考察」에 대한 論評〈李 大 根〉· 189
 「韓國經濟의 歷史-構造的 認識」에 대한 論評〈鄭 甲 泳〉· 194
 經濟體制와 經濟變動: 論評에 대한 答論과 綜合討論198

제 4 부 勞動과 勞使問題

勞動과 勞使問題: 實證主義的 認識〈金 晁 峯〉· 206

6 차 례

韓國의 勞動問題에 대한 政治經濟學的 接近〈韓 弘 淳〉· 250
 「勞動과 勞使問題: 實證主義的 認識」에 대한 論評〈李 正 澤〉· 269
 「韓國의 勞動問題에 대한 政治經濟學的 接近」에
 대한 論評〈金 有 培〉· 274
 勞動과 勞使問題: 論評에 대한 答論과 綜合討論279

제 5 부 社會構造와 社會變化

機能主義的 觀點에서 본 資本主義 社會에 있어서의
 矛盾과 國家와 變革〈鄭 昌 秀〉· 284
 社會構造와 社會變動: 歷史的 接近方法의 可能性〈崔 載 賢〉· 309
 「機能主義的 觀點에서 본 資本主義 社會에 있어서의
 矛盾과 國家와 變革」에 대한 論評〈申 光 榮〉· 326
 「社會構造와 社會變動: 歷史的 接近方法의 可能性」에
 대한 論評〈柳 錫 春〉· 333
 社會構造와 社會變化: 論評에 대한 答論과 綜合討論340

제 6 부 不平等과 衡平問題

韓國社會階層에 관한 實證主義的 研究: 現況과 問題點...〈車 鍾 千〉· 348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형평의 문제: 역사적 접근법과
 실증적 접근법의 접합을 제안하며〈강 정 구〉· 365
 「韓國社會階層에 관한 實證主義的 研究」에 대한 論評 ...〈徐 寬 模〉· 388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형평의 문제」에 대한 論評〈洪 斗 承〉· 392
 不平等과 衡平問題: 論評에 대한 答論과 綜合討論399

「社會構造와 社會變動：歷史的 接近方法의 可能性」에 대한 論評

柳 錫 春
(延世大 教授 · 社會學)

I. 崔載賢教授의 問題提起와 韓國國家의 性格

‘한국사회의 인식’에 ‘역사적 접근방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崔載賢교수의 주장은 다음의 인용문을 보면 잘 드러난다.

...역사가 오랜 우리 사회의 경우 오늘의 사회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과거에 있었던 사회과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유용한 단서를 열어준다. 현존의 지배구조는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자들이 간단하게 定義내리는 바 자본주의 국가 그 이상의 것이다. 오늘의 권위주의국가에는 왕조시대로부터 식민지국가시대를 거쳐 이어져 내려오는 국가계급의 억압적 통치방식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는 자본가들의 국가 이상의 국가로서 그 자신이 거의 초월적인 自律性을 갖는다. 자본가들의 이익에 봉사하다가 자본가들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성을 확보했다는 의미에서의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과는 그 역사적 맥락이 다르다. 국가, 그것은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된 역사가 이미 오랜 이 사회에서 사회위에 군림하는 契約 以前的 통치기구인 것이다.

이러한 국가사회에서 지배계급은 자본가계급일 뿐만 아니라 國家階級이다. 이 국가계급의 통치행위와 세계관에는 자본가계급의 그것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배신분의 유산이 포괄되어 있다. 국가의 고위관료는 단지 봉급을 받고 이른바 대민봉사를 하는 기능인 이상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특혜를 최고권력자로부터 분배받은 특별한 자원으로 생각하면서 관료행정의 일상과정을 통하여 경제적, 문화적 특권을 두루두루 누리려 하는 것이다. 이른바 관료적 권위주의는 종속자본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의 경우는 왕조시대 이래의 전통인 것이다. 이러한 지배체제에서 지배계급의 성원들이 경제적, 정치적 세력 못지 않게 문화적 힘까지 가지려 한 것은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편,
1990 「한국사회의 인식논쟁」 법문사

너무도 당연하다. 그 흔한 명예박사학위나 최고지도자를 위한 야간대학원 코스 등은 지배계급의 이러한 신분적 상징물들을 공급하는 데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최재현, 1990:321-322).

다소 장황하게 인용하였지만 윗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현재의 한국 사회의 支配構造는 일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자본주의 국가'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서양의 자본주의 국가의 등장과는 맥락을 달리하는 우리 역사의 특수성을 내포하는 權力關係를 개념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逆說의이게도 논평자가 얼마 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주장하였던 바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의 논의를 위하여 장황하지만 다시 한번 논평자의 글을 인용하기로 한다.

현대 한국사회의 국가의 특징이 그 경제적 토대의 단순한 반영물, 즉 자본가 계급의 이해에 봉사하는 도구적 국가라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적 개념에 합당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연구결과들은 많이 있다. 이는 우선 주변부 자본주의론자인 이대근(1985:346)에 의해 토대와 상부구조 간의 '비조응'의 문제로 파악되었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 주변부 자본주의론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한상진(1983:271-72)의 관료적 권위주의론에서 '심층의 유산'이라 지적되었으며, 최장집(1985:229)의 과대성장 국가론에서 '네가지 변수'로 관찰되었으며, 임현진(1984:279-85)의 종속적 발전론에서 '전통적 권위주의'의 요소라고 각각 주장된 것이다. 한편 박광주(1985, 1986)는 현대 한국국가의 성격을 마르크스주의적 경제결정론으로 접근하는 시각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며 '집정관적 신중상주의국가론'을 제기하였다.

서로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이들은 모두 현대 한국국가의 특징적 성격을 전통적인 사회구조, 특히 전통적인 지배양식과 깊은 연관성에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이들은 모두 현대 한국국가의 성격을 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나타난 자본주의적 생산의 사회적 관계, 즉 자본과 임노동의 계급대립에 바탕한 계급국가의 개념으로만 설명하는 틀은 충분하지 못하며, 이에 덧붙여 한국사회가 전통사회로부터 물려받은 국가권력의 특징을 역사속에서 파악하여야만 현대 한국국가의 성격이 보다 분명히 밝혀질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유석춘·국민호, 1988:167).

위의 두 인용문은 모두 한국사회의 구조와 변동을 이해하는 데 역사적 접근방식이 절실히 필요하며, 그렇게 할 때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은 전통사회의 틀 안에서 국가가 차지하던 역할이 자본주의적 사회분화를 겪으면서 어떻게 지배질서에 변용되고 있는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토론의 중심과제는 이와 같은 문제제기가 과연 정당한 것이며, 만약 정당한 것이라면 한국역사의 특수성을 규정하는 사회학적 개념은 무엇이 되어야 하며, 또한 그 개념으로 한국역사를 이해하면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우리 역사의 '잔여범주'(즉, 위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특수성)가 어떻게 이론적으로 통합된 의미를 가질 것인가를 검토해 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문제를 사회학적 시각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논의한 한국의 사회학자는 논평자의 과묵한 탓인지 아직 찾아볼 수 없다. 단지 보편적인 마르크스주의적 역사발전 법칙에 대한 대안으로서 엘리아스(Elias)의 '궁정사회' 개념을 도입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최재현, 1983). 또한 외국학자로서는 '가산사회(patrimonial society)'의 개념을 제시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Jacobs, 1985; 유석춘·국민호, 1988).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사회 역사발전의 특수성에 주목하면서 한국국가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을 시도할 때 고민하여야 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여 함께 토론하도록 함으로써 논평을 대신하려 한다.

II. 韓國國家의 性格과 關聯한 歷史學의 研究成果

한국국가의 역사적 성격을 특정한 사회학적 시각에 따라 규명할 때 사회학자가 극복해야 하는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는 崔교수가 지적하였듯이 자료해석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료해석의 능력을 키워 역사사회학적인 접근을 직접 시도하는 것이지만, 차선책

으로서 역사학의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차선책의 방법을 수용하더라도 사회학자가 이 주제와 관련된 역사학계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여전히 지난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여기에서는 역사학 내부의 연구성과중 논평자가 접할 수 있었던 논문들 가운데 한국국가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최근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그 결과의 사회학적 함의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朝鮮社會 혹은 한국 중세사회의 성격을 개념화하려는 노력은 주로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선도된 것이 사실이다. 최교수도 지적하였듯이 5단계설에 입각하여 우리 역사에서도 노예제사회와 봉건제사회가 존재하였음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일찍이 30~40년대부터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社會構成體論爭을 통해 다시 역사발전의 경로에 관한 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논쟁 가운데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면, 이는 다름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封建社會의 존재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견해이다.¹⁾ 그러나 역사학계 내부에는 우리 역사에서 서구식의 봉건사회 혹은 봉건적 생산양식의 단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송주영, 1957; 양병우, 1971). 또한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을 가지더라도 아시아적 특수성에 주목하는 입장은 조선 후기의 소농민경영의 자립화가 오히려 전통적인 中央集權的 官僚制 國家形態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이영훈, 1988). 또한 한국 중

세사회가 농민이 생산을 담당한다는 의미에서는 봉건사회이지만 중세 서구의 봉건사회와는 질적인 차이점, 즉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를 보여주고 있음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김홍식, 1988).

이와 같이 다양한 연구의 결과는 결국 韓國 中世社會의 성격에 대하여 아직까지 합의된 개념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고, 이는 곧 현재의 한국사회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노력이 전제하고 있는 역사적 가정이 보다 충실하게 검토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역사인식의 기초가 되는 封建社會의 존재는 과연 근대 자본주의에로의 이행에 필연적인 조건인가? 혹은 한국 중세 말기에 나타난 자본주의의 맹아는 제국주의적 침략이 없었다면 자생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었는가?(차남희, 1981) 이러한 질문들은 보기에 따라 질문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은 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역사적 변동에 대한 이론화를 추구하는 사회학자로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은 보편적 역사발전법칙으로부터 벗어난 우리 역사의 특수성, 즉 국가권력의 집중현상과 뿌리깊은 權威主義的 支配樣式을 새로운 시각에서 비쳐볼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의 역사발전법칙은 과연 필연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이론적 대안이 가능한가? 이에 대한 통찰력은 우리 역사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이며, 또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총체적인 사회사의 관점에서 사회학적으로 분석 및 종합하는 작업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III. 論爭의 活性化에 必要한 與件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역사에 나타나는 특수한 지배의 양상, 즉 과거의 中央集權的인 국가형태와 현대의 변용된 權威主義 국가의 모

1) 이들의 논쟁은 다만 봉건사회가 해체하고 자본주의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적 규정성을 더욱 증시해야 하느냐 혹은 내부의 자생적 동력을 더욱 증시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전자의 입장은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을 거쳐 주변부자본주의론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후자의 입장은 보다 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을 따른 이유로 인해 국가독점자본주의론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물론 이들의 논쟁은 사회변혁을 어떻게 하면 빨리 그리고 착오없이 이룩하여 역사발전의 최종단계인 사회주의사회로 이행해 갈 수 있는냐하는 현실적 실천의 문제와 연결된 것이다. 즉 현단계에 아직도 반봉건성이 존재한다면 우선적인 목표는 부르조아 자본주의사회를 확립한 후 사회주의로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현단계에 이미 부르조아 자본주의 사회가 확립되어 있다면 즉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시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천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그들은 수많은 형용사를 동원하여 한국사회 자본주의의 성격을 맹렬하게 논의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의 논쟁은 모두 역사발전의 경로에 관하여는 의심의 여지없이 5단계설을 수용한 셈이며 단지 현단계의 위치가 어느 곳인가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보여줄 뿐이다.

습을 사회학적인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필요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여건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로는 한국역사의 특수성을 이론화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이론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최재현, 1987). 일찌기 베버는 역사적 다양성을 규명하는 작업의 하나로 지배의 유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바 있다(Roth, 1971).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우리 학계는 이 문제에 관해 아직까지 체계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도 동양사회에 나타나는 상부구조의 토대에 대한 규정성에 주목하여 '아시아적 생산양식'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왔으나 우리 학계에서는 매우 주변적으로만 수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할 두번째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름아닌 식민사관의 극복이라는 민족주의적 가치판단의 문제이다. 봉건사회의 존재여부를 따지는 노력 자체가 '정체론'이라는 식민사관으로 해석되어 대안적 역사발전의 가능성을 이론화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두가지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는 학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인내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적인 역사해석, 즉 보편적인 발전법칙에 대한 대안이 이론화되어 우리 역사의 특수성을 보다 잘 포섭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자연히 극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參考文獻

- 김홍식. 1988. "한국중세에 있어서의 봉건제론." 「한국자본주의 성격논쟁」. 대왕사.
 박광주. 1985. "국가론을 통한 한국정치 의 파라다임 분석." 「현상과 인식」 9(2).
 1986. "집정관적 신중상주의적 국가론." 「현대 한국정치와 국가」. 법문사.
 양병우. 1971. "우리나라에도 봉건제도가 있었는가." 「역사교육」 14호.
 유석춘·국민호. 1988. "노만 제이콥스의 동양사회론과 한국사회." 「사회사 연구의 이론과 방법」. 문학과 지성사.
 이대근. 1985. "한국자본주의의 성격에 관하여." 「창작과 비평」 57호.
 이영훈. 1988. "조선시대 사회경제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역사비평」 여름호.

1988. "조선봉건론의 비판적 검토." 「한국자본주의 성격논쟁」. 대왕사.
 이호철. 1988. "조선시대 사회경제사 연구의 새로운 진전을 위하여." 「역사비평」 봄호.
 임현진. 1984. "중속적 발전에 따른 국가의 변모." 「한국사회의 재인식」. 한울.
 차남희. 1981. "한국사회 봉건제도에 관한 연구의 성격."* 「현상과 인식」 제5권 2호.
 최장집. 1985.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주의적 통제."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가치.
 최재현. 1983. "한국 전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개념규정문제."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법문사.
 1987. "마르크스와 베버의 아시아 사회관." 「동서연구」 11. 서강대학교.
 1990. "사회구조와 사회변동: 역사적 접근방법의 가능성."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주최 심포지움 「한국사회의 인식: 실증주의 대 역사주의」. 수안보. 2. 22-24.
 한상진. 1983. "관료적 권위주의와 한국사회."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법문사.
 Jacobs, Norman. 1985. *Korean Road to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Roth, Gunther. 1971. "Max Weber's Comparative Approach and Historical Typology." Vallier(ed.), *Comparative Methods in Sociology*. San Fransisco: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